새로운 표현을 향하여: 아름다움의 예술

케이트 브라이언, 큐레이터, 평론가

21 세기를 맞이한지 10 년, 지난 세기의 미술계의 혁명적 여정을 되돌아 보면 그 혁신적 면모는 유럽의 반체제 예술운동에서 출발하여 전통적 매체, 형식, 내용 및 미학에서 탈피한 전세계 예술가 집단으로 발전되어 정점에 달했다. 미술계 밖에서 바라본 지난 수십 년간의 현대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접근이 어렵고, '예술'로 인식되는 매체나 형식에 더 이상 억매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작품에 대한 미학적 요구 자체가 무모하다고 생각될 만큼 지독히 개념적이라는 것이다. 반체제적 인사들은 예술사적 전통에서 탈피하는 것은 미학과 형태적 예술감상에 있어서 공허함을 자아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현대예술의 최고의 작품들, 혹은 가장 값나가는 현대 예술품 내지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한 현대예술의 극치가 오로지 개념주도적이기만 하다면, 진정한 의미의 '창작'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이미지와 디지털 기술 및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로 포화상태에 이른 오늘날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적 전통, 장인정신, 창조를 위한 노동, 물리적 창작행위가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들은 더 이상 현대문화에서 유의미한 담론을 창출하는 데 활용될 수 없는 것 일까?

한국계 미국인 작가 데비 한의 작업은 21 세기 현대 예술가들이 대면하고 있는 매우 유효하며 근본적이라고 할 수 이 질문들과 정면으로 부딪쳐 나아가고 있다. 작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한 심오한 개념 작업을 형상과 매체의 빼어난 통합으로 탄생시켰다. 인간의 삶이 현대 문화 속에 어떻게 길들여지고 구축되어 가는가에 대한 데비 한의 지속적인 관심은 그녀의 작업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데비 한의 모든 작업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다양한 수공방식을 바탕으로 한 고된 창조과정과 보는 이로 하여금 충격과 놀라움을 불러 일으키며 시선을 잡아 끄는 강렬함이 빚어내는 이중적인 힘이다. 작가는 이러한 기법을 통해 단순히 공허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예술품을 만드는 것이 아닌, 문화적 담론을 제기하며 사회적 패턴과 정체성의 문제를 해체한다.

이러한 접근법의 초기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콘돔 시리즈(Condom Series), 2001-2003> 연작에서 작가는 쓰고 버린 콘돔의 형태를 빚은 청동조각들은 선보인다. 이 오브제가 내포하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는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함을 일으킨다. 그러나 작가의 기술적 역량과 대립적 이미지의 예기치 않았던 재치는 이 작업을 보는 관객들을 매료하여 결국 섹스와 같은 인간 본질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얼마나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로 이끈다. 데비 한의 작품은 분명 개념적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작가가 학창시절 접했던

기존의 개념미술가들에게 공공연한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 아이디어와 형식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비 한의 작업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나던 궤도에서 멈춰 서게 만들며 그녀의 장인정신에 감탄함과 동시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데비 한은 한국에서 태어난 후 지금껏 대부분을 시간을 미국에서 보냈다. 이렇듯 복잡한 성장배경을 가진 만큼, 문화적 패턴,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및 한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어떻게 키워나가는가에 대한 탐구는 작가 자신에게도 필연적인 것이다. 2003 년 서울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단순한 이방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기서 출발한 객관적 시각이 작가의 작품세계에 강력한 원천이 되었음은 자명하다. 문화적으로 분리된 작가로서의 그녀의 입지는 한국과 아시아의 현 상황을 넓은 시각에서 해체 및 기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서울을 관찰하던 데비 한은 한국 사회에 뿌리 박힌 강력한 서구적 미(美)의 기준에 충격을 받는다. 한국 여성들은 서구지향적 아름다움의 기준이란 '이상'에 근접하기 위해 화장품을 사고 성형수술을 받는데 매년 수 조원을 쏟아 붓고 있다. 한국의 젊은 여성의 60% 이상이 자신의 타고난 외모를 사회적 미(美)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통계는 성형수술이라는 행위가 더 이상 자유로운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과정임을 드러낸다. 단어 선택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하는데, 한국에서 얼굴 성형 수술은 말 그대로 ' 얼굴을 고친다' 라고 표현한다. 이에 맞서 데비 한은 논쟁적 페미니스트 작가 나오미 울프가 '아름다움의 신화(Beauty Myths)'라고 표현한 이 문제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규정된 이러한 미의 표준은 자연스럽게 얻을 수 없는 것일뿐더러 개개인의 개성의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 동질성의 특성을 띠며, 따라서 개인의 정체성 및 현대세계를 마주하고 헤쳐나가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후 데비 한은 <미의 조건(Terms of Beauty), 2004-2010)> 연작에서 이상적 아름다움에 대한 담론을 세계 무대로 확장시키며 문화적 왜곡현상과 대항한다. 작가는 신격화된 서구 미(美)의 이데올로기, 서구고전 미인의 표상 비너스의 얼굴을 빌어 다양한 문화권의 전형적인 얼굴 특징을 결합시킨다. 유대인의 코, 아프리카인의 입술, 동양적 눈매에 이르기까지 비너스의 두상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종의 주요 특성들을 담아낸 것이다. 데비 한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미의 표준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개성의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획일화된 아름다움의 신화에 의문을 품게 한다. 또한 작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재료를 선택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을 다시 한번 복원한다. <미의 조건>의 흉상들은 한국의 전통적 도자기인 청자로 만든 것으로, 다루기도 어렵고 제작 과정이 고되 현대 예술가들은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재료다. 따라서 청자라는 소재의 선택은 서양의 예술사적 지배에 대한 항거라고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작가의 주제 의식을 강조해준다. 나아가 이는 작가로 하여금 몇 백년 전 과거의 창의성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부여한다. 3 년 후 데비 한은 조각상을 본 사이즈 크기로 키우고 백자라는 또 다른 전통 도예소재까지 접목시키어 만들며 창작적 도전을 이끌어 나갔다. 작가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고 현 위치를 이해하기 위한 메타포로서 옛 도자 예술인 청자와 백자를 활용한 것이나 이는 고대 아시아 문화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현대 사회를 향해 질문을 제기하려는 시도이다. 서양의 전통인 대리석 지상주의를 거부함으로써 작가는 청자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지난 세기들의 한국 작가들의 유산이라는 맥락으로 자신의 입지를 연결시킨다. 그녀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밝히면서, 외부에서 빌려온 문화적 정체성으로 전통을 휩쓸어 버리는 것을 하여 거부한다. 동시에, 주제의 대상을 차용하고 조작함으로 개성과 자연스러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포츠 비너스(Sports Venus), 2008> 연작은 아시아의 전통적 매체와 현대 사회의 정체성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 관습의 강력한 결합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작품에 쓰인 한국의 나전칠기 기법은 매 작품 당 스무 차례 이상의 제작 과정을 수반하는 극도로 노동 집약적인 기법이다. 그녀의 도전과제는 수천 년 전의 공예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아시아의 전통 공예를 현대 미술의 영역에 녹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연관성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또다시 데비 한은 비너스라는 강력한 아이콘을 이데올로기의 기표(記標)로 둠으로써, 아름다움의 도그마에 대한 피할 수 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순백의 대리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깊고 진한 갈색의 조각상은 마치 서로 대변되는 고대 문화의 충돌을 의도한 것처럼 보인다. 작가는 섬세한 자개를 활용하여 스포츠 세계에서 빌려온 근대적 모티프를 비너스의 두상에 덧입힌다. 미식축구공의 일면에서 따온 실밥들이 비너스의 머리에 마치 흉터처럼 꿰매놓은 것처럼 보인다. 비너스가 스포츠의 영역에 ___하며 이상적 미의 개념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의 새로운 형태로 부각되며 또한 교환, 개선, 상품화 될 수 있는 대상으로의 명쾌한 상징이 된다. 이 작업을 통해 작가는 이상적 아름다움을 취하려는 행위의 덧없음이 마치 도박게임에서 하우스를 이길 수 없는 상황처럼 부각시킨다. 내세운 미의 표상은 날조된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매체 혹은 장르에 안주하지 않는 데비 한의 작업방식은 그의 작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불려 일으키는 원천이 된다. 그녀는 전통적 기법에 안착하는 작가로 분류되기를 거부하며 현대 디지털 기술의 접목을 통해 작품 세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작가는 <여신들(Graces), 2005-2010> 연작에서 최첨단 디지털 전문기술을 도입하여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조정하는 섬세한 작업을 거쳐 최적의 조형성을 창출했다. 이는 작업을 만들어 나가는 행위와 미술의 시각적 힘 역시도 개념과 철학과 더불어 그 자체의 위상을 찾아 한다는 작가의 가치관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로 탄생한 그녀의 사진 작업과 청자, 나전칠기 조각상의 공통점이라면 극도로 길고 고된 작업 과정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그 예술품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여신들> 연작에서도 평범한 아시아 여성의 몸에 이상화된 그리스 조각상의 얼굴을 결합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생성된 미의 개념과 문화적 이탈현상에 대한 비평을 지속한다.

데비 한은 인체조각과 인물사진 장르들의 관습들을 전복시키며 환상과 현실의 경계, 서양의 이상적 미의 기준과 현대 아시아 여성의 현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든다. <여신들>은 깊고 어두운 배경에 고대조각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현대판 누드이다. 칠흑 같은 배경은 그 어떤 기표와 맥락도 제시하지는 않지만, 이를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어떤 현실적인 맥락에도 구애 받지 않는, 그리하여 담론과 논쟁을 생성시키는 미설정의 공간을 창출해 내었다. 작가는 실제 현대 아시아 여성의 신체와 이상화된 고대 여성의 얼굴이 맞물린 혼성적 형상을 통하여 서구 사회의 오랜 미술사적인 모티프로써의 여성의 자태와, 그러한 기준을 잣대로 아시아 및 세계 현대 여성들이 평가 받고 있다는 왜곡성을 반영한다. 딱히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해 가장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디지털 회화기법을 사용하여 작가는 세월의 흔적과 불완전성을 무시한 채 언제나 완벽한 몸매로 등장하는 현대 사진에서의 날조된 여성상이란 개념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데비 한은 아시아 시장을 장악한 피상적인 서구중심적 미적 기준에 대한 단순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큰 질문들을 던진다. 즉, 특정 사회적 규범이 가진 복잡성 속에서 형성되는 것, 이를테면 아름다움의 기준을 기표로 삼아, 전체적인 문화와 인간의 삶이 이러한 사회적 여건 속에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야기 한다..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후 시작된 작가의 개념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세계는 <인식의 눈(The Eye of Perception), 2010>에서 절정에 이른다. 데비 한은 서구 및 아시아의 현대 문화에 만연한 있는 아름다움의 신화를 주제로 삼아 자신의 기존의 창작과정을 해체하며 새로운 도전을 감행한다. <미의 조건>과 <스포츠 비너스>를 만들면서 얻은 전문적 조각기술을 바탕으로 흙으로 비너스 두상을 빚어 다양한 문화권의 전형적인 얼굴 특성들을 빚어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연작은 조각적이지 않다. 데비 한은 입체적 매체인 조각에 머물지 않고 생산된 조형물의 사진을 찍은 후 이를 디지털 이미지로 선보인다. 각 작품은 최대 4 장까지 겹쳐 놓은 이미지로 구성된다. 작가는 이러한 이미지 레이어링에서 얻어진 조각품의 흐릿한 경계선으로 부피와 역동성의 느낌을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 마치 작가의 손에 의해 고대 비너스 두상들이 그대로 깨어나, 도그마적 아름다움의 신화로 상징화된 자신들에 대한 현대 논쟁의 장에 이끌려 나온 것 같다. 데비 한의 기법은 여러 모로 전통적 사진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정리하자면, 작가는 고대의 모티프를 차용하여 직접 흙으로 빚어 개조하고, 가마에서 굽기 전 상태에서 수 백장의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이미지를 겹치어 새로운 혼성적 '사진 조각' (hybrid 'Photographic Sculpture')으로 재창조한다. 자신의 기존 작품에서 새로운 작품을 탄생시키며, 조각과 사진, 그리고 전통적 및 현대적 작업과정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인식의 눈>에서 데비 한의 작품 세계는 최고조에 달한다. 조각과 사진으로 이루어진 지난 연작을 배치 및 발전시킴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둘러싼 논쟁을 한껏 고조시킨다. 데비 한은 개념과 기교의 빼어난 균형을 강조하며 '창작'의 힘을 부활시킴으로써 진지한 의미의 담론을 창출해 내고 있는 21 세기 예술의 개척자이다. 그녀의 작업 과정 자체에는 자신의

철학과 인간 존재 조건의 구성을 이해하려는 탐구정신이 깊이 녹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결코 자신의 지성의 덫에 걸리게 방치하지 않는다. 매체 사이를 넘나들며, 나아가 절대로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 데비 한의 작품은 그 주제의식뿐만 아니라,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탁월한 시각적 아름다움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